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 미국 경제의 큰 이슈
- Bloomberg: 미 온라인 제품 가격 4개월째 하락... 연말 할인 정책 탓
- Bloomberg: 미 크레딧 카드 소지자들, 빚 상환 늦춘다
- Bloomberg: JP 모건 CEO, “연준 금리 5% 이상 올려야 될 수도”

[미국 금융]

- Bloomberg: 블랙록, 피델리티, “시장이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저평가” 경고

[부동산]

- CNBC: 미 소비자 주택 신뢰 지수 마침내 상승... 집값 하락 덕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미국 보호주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암울한 징조는 깊어진다... "美 금리 역전, 증시에 고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사무실 부동산 소유주들, 이제는 아파트로 눈 돌린다
- Bloomberg: 디즈니 CEO, “일주일에 4일은 사무실로” 요청
- Bloomberg: 구글과 메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재 끝났다
- Bloomberg: MS, ChatGPT 만든 OpenAI에 1백억 달러 투자 고려
- Bloomberg: 2023년 최고의 유망 직업군 20가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Inflation's Path From Peak Is Next Big Question for US Economy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 미국 경제의 큰 이슈

- 올해 전문가들의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둔화될 것인가다.
- 인플레이션 변동은 국내적으로는 노동 시장, 주택시장, 외부적으로는 공급망과 강대국 간의 무역 블록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말 기준으로 6.5%로 예상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큰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 **The Recession Factor:** 경제가 여전히 건강해 보인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이들이 팬데믹 저축을 여전히 뽑아 쓰고 있고, 일자리도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다.
- **Watching Paychecks:**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임금 상승에 소득 상승으로 인플레이가 계속될 위험에 있다.
- **Jobs, Wages and Inflation:** 물론 12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원격 작업과 자동화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치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 **Supply Chains:** 회복되고 있어 일부 수입품의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 전쟁과 미중 갈등 등 변수가 있다.
- 이밖에 중국 재오픈 상황에도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인플레이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Online Prices Drop a Fourth Month on Steep Holiday Discounts

미 온라인 제품 가격 4개월째 하락... 연말 할인 정책 탓

- 관련 데이터 Adobe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연말 할인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 4개월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연간 대비로는 1.6% 낮아졌고 18개의 품목 가운데 반이 감소했다. 특히 컴퓨터, 가전제품, 할인 품목 장난감이다.
- 한마디로 12월 전자 상거래 규모는 9백51억불인데, 강한 소비 지출은 새로 수요가 늘어서 라기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탓이라는 것.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sumers Roll Over More Credit-Card Debt as Inflation Bites

미 크레딧 카드 소지자들, 부채 상황 늦춘다

- Bankrate LLC가 12월에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소지자의 약 46%가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약 43%는 자신의 카드와 관련된 이자율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카드빚 상황에 최근 수년간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40년 만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탓이다. 일부의 경우 매달 치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1천불이 넘는다는 것. 가뜰이나 연준은 인플레이 통제를 위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mie Dimon Says Fed May Need to Hike Interest Rates Beyond 5%**JP 모건 CEO, “연준 금리 5% 이상 올려야 될 수도”**

- Jamie Dimon는 연준이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해 연준이 인상한 조치 때문에 얼마나 여파가 생길지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Fox Business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5%로 인상할 가능성과 6% 인상할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금리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약간 늦은 대응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잡았다.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Markets Are Underestimating Inflation Again, BlackRock and Fidelity Warn****블랙록, 피델리티, “시장이 또 인플레이 가능성을 저평가” 경고**

- BlackRock와 Fidelity Investments, Carmignac 등 대형 자산 관리사들은 시장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와 연준 금리의 정점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인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향후 1년 연준 목표치 쪽으로 떨어지고,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과 전망은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 Carmignac측은 “내년에 인플레이가 2.5%로 낮아진다는 기대는 판단 잘못이며, 세계는 지난 1966과 1980년 사이의 거시경제 사이클로 진입 중이라고 말했다. 그 기간은 미 인플레이가 두자리 숫자로 올라간 에너지 가격 충격을 경험한 시기라는 것.
- BlackRock 또한 고물가라고 해도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이 고물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연준이 대규모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조금씩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CNBC: Consumer confidence in housing finally rises, thanks to falling home prices****미 소비자 주택 신뢰 지수 마침내 상승...집값 하락 덕**

- 연방 Fannie Mae의 자료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까지 소비자 주택 심리 지수가 전달 사상 최저치에서 벗어나며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라는 응답은 21%로 여전히 낮았지만, 10월의 16%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매도 적기라는 응답은 54%에서 51%로 줄었다.
- 한편 30년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10월 7.37%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6.2%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경제성(구매 여력)이 앞으로 주택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The Economist: What America's protectionist turn means for the world**
미국 보호주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 미국은 인플레이 감축법, 반도체 진흥법 등을 통해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 일례로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조치들... 유럽과 아시아는 '중국에 공동 대항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미국만 살겠다는 입장에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유럽은 강하게, 아시아는 다소 작은 목소리로.
-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국가 보조금 정책을 반대하는 WTO로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다. 미국은 소송에서 졌을 경우 항소할 것이다. 미국은 최종 패자가 될 리 없다. 미국의 영향력으로 (트럼프 때) 항소 재심 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재소 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된다.
- 가능한 대응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저마다 '나도 보조금' 정책을 들고나올 수 있다. 한국은 국내에 자체 서비스 센터를 소유한 회사들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국 회사들은 배제된다.
- 일본도 첨단 반도체 생산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도요타와 소니 등 8개 일본 회사들은 새로운 반도체 회사인 Rapids를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 회사의 반도체 연구 지원금으로 5억불을 주기로 했다.
- 프랑스와 독일 경제 장관들은 전략적인 분야에 발 빠르게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적 자금의 낭비, 그리고 협력해야 할 국가들 간에 상호 비난 등이 있게 될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암울한 징조는 깊어진다... "美 금리 역전, 증시에 고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op Office Owners Don't Want to Own Only Office Buildings Anymore

미 사무실 부동산 소유주들, 이제는 아파트로 눈길 돌린다

- Boston Properties Inc., SL Green Realty Corp, Empire State Realty Trust 등 미국 최대 규모 사무실 소유주들이 새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사무실 공간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등 주택 부동산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다.
- 이는 팬데믹과 원격 근무의 증가로 도시 중심에 위치한 오피스 타워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에 따라 사무실 소유 부동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 물론 사무실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징후가 있지만, 현대 사무실 공간은 시설이나 효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졌다. 주택 부문은 비교적 자본 투자가 덜 필요하고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업계에 더 가능성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Disney CEO Asks Employees to Return to Office Four Days a Week

디즈니 CEO, "일주일에 4일은 사무실로" 요청

- 디즈니 CEO가 지난 11월 "현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을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요청" 함에 따라 디즈니 직원들은 3월 1일부터 주 4일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Bob Iger CEO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동료들과 물리적으로 함께함으로써 소통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ogle and Meta Are Losing Their Grip on the Digital Ad Market

구글과 메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재 끝났다

- 5년 이상 지속된 구글과 메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현대 인터넷 산업의 “머니 머신”인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해왔다.
- 하지만 애플이 2021년 애플 사용자에게 더 많은 데이터 공유 통제권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맞춤형 광고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 지난해 디지털 광고 수익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고, 메타는 2022년 사상 첫 2분기 연속 수익 감소, 알파벳의 매출은 2015년 이후 가장 긴 불황기를 맞았다.
- 대신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광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아마존, 애플, 틱톡, 월마트, GroupM에 이르기까지 광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구글과 메타는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icrosoft Considers \$10 Billion Investment in ChatGPT Creator

MS사, ChatGPT 만든 OpenAI에 1백억불 투자 고려

-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를 만든 OpenAI에 1백억 달러의 자금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공동 설립한 OpenAI가 지난 11월 말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ChatGPT는 일주일도 안 돼 1백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인간의 대화를 모방한 ChatGPT는 전문 작가를 대체하고 구글 검색 엔진을 위협할 가능성까지 불러일으켰다.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해당 논문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10억 달러를 OpenAI에 투자한 바 있다. Bing 검색 엔진에 ChatGPT를 도입해 구글 검색을 뛰어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ChatGPT의 조기 사용에 대한 정확성 우려로 뉴욕시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ChatGPT 접속을 금지하기도 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Top Careers for 2023: These 20 Jobs Are In High Demand

2023년 최고의 유망 직업군 20가지

- US News가 고용 수요, 성장률, 임금, 고용률, 향후 일자리 전망, 스트레스 수준, 워라밸 등을 기준으로 미 노동 통계국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최고의 일자리를 선정했다. 바로 아래 참고.
- 경기 불황에 대한 두려움과 해고 위협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직업 안정성이 가장 높은 직업은 다음과 같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인사들, 0.25%p 금리인상 가능성 거론...12월 물가 주시

지난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작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연준 인사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효과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으며, 기존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 이후 지난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을 4.50%로 끌어올린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1/10/23, 3:22 PM

Constant Contact

Sent by office@kocham.org